

신종 A형 인플루엔자(H1N1)가 최근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국대 일산병원에도 하루 600~700명 환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열진료소를 찾아와서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는 기침과 콧물 등의 단순한 감기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직 증상은 전혀 없지만 가족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있어서 걱정이 돼 오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고열과 기침, 목아픔, 콧물, 기침 등 신종 인플루엔자를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확진검사를 시행하면 60~70%가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2~3주 사이에 학생들에게 이런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신종 인플루엔자로 진단되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김의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감염내과

거점병원서 본 신종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백신접종을 통해 면역을 갖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이 종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 1월까지 전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에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 거점병원인 동국대 일산병원에도 백신이 일부 공급돼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1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였다. 문제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계란에 접종해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백신의 효과가 주사 후 10~14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초까지는 인플루엔자의 증가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백신접종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탈렌자)를 투여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

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10월 26일 자료 기준에 65세 이상의 노인, 59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하던 지침을 변경해 모든 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초기부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만 급급하던 항바이러스제를 일반 약국에도 공

급하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사례는 10월 28일 현재 공식적으로 총 33건이고 이중 고위험군이 28건(85%)을 차지한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과거의 대유행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고 인플루엔자가 가장 유행하는 겨울철을 큰 문제없이 잘 극복한 호주의 예를 살펴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자주 손씻기,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지 않기 등 일반적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한 부작용이 없는 한 약제를 잘 복용하도록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이후에도 발열이 3~4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거점병원을 찾아서 다른 질환이나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이 있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여전엔 연탄 100장만 있으면 겨울이 든든했던 때가 있었지요 날씨가 추워 지네요 어려운 이웃 있는지 돌아보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선: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시간

해군 순항훈련이라면 많은 이들이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해군에서 군중법사로 근무하는 내게도 순항훈련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해군 순항훈련은 졸업을 앞둔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위한 졸업여행 겸 교육훈련으로 해군 함정을 타고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법사, 목사, 신부의 군중장교도 함께 파견된다. 출발준비부터 어수선한 것이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함정에 오르게 됐다. 창문도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여기저기 그물처럼 연결된 전선들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어찌 100일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 참 막막한 심정이었다.

배멀미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회의와 과업들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 나에게 하나들씩 찾아드는 인연이 있었다. 함께 훈련에 참가한 불자 해군사관생도들이었다. 처음 법사로 인연된 것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랬더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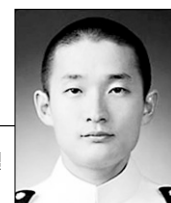
니 힘들기만 하던 시간이 점점 행복한 시간들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좁은 방에 모여 옹기종기 차를 마시며 시작한 것이 많은 이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사관생도 122명중 70여 명이 법회에 참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인연들의 배려 속에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함정에는 좁은 공간에 수백 여 장병이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법당과 법사의 방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함께 방을 사용하던 불자 장교는 물러드는 인연들 덕분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훈련 내내 이곳저곳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했다.

낮선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국불교를 홍보하고 있는 스님들을 만났다. 필리핀 불국사 포교원 법관 스님, 스리랑카 탄경 스님, 싱가포르 연화원 일안 스님을 비롯해 각국 불자들이 주신 아낌 없는 지원은 순항훈련단의 모든 범우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각 사찰에서 준비한 법회와 공양, 지역관광안내, 맛있는 간식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젊은이들과 함상에 모여 바다와 하늘을 보며 나눠 먹는 열대과일의 맛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이 순간만 지나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라고 말하며 다음을 기다린다.

군에서 포교하는 법사님들에게는 복무로 힘겨워하는 장병들에게 이 순간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하고 답을 찾아갈 의무가 있다. 육군에 근무하시는 선배법사님 방에 쓰여 있던 입체 스님의 '수처 작주 입처개진(隨處作住 立處皆眞)'이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 법사님 스스로도 순간순간 주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연되는 모든 불자들도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다짐을 빚낸 것일게다.

마음을 열고 보시를 행하며 자비심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너무나 행복했던 순항훈련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며 내 삶의 주인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실현 스님
해군본부 군중실

社說

광주불자들에게 배워라

2009년 빛고을아카데미가 10월 27일 시작했다. 12월 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열리는 '빛고을아카데미'에는 800명의 지역 불자들의 접수했다고 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빛고을아카데미가 지역불교행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광주지역 불자들은 봉행행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빛고을아카데미를 평가하고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기획력이다. 해마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강사 스님들을 섭외하는 것이 지역불자들에게 어필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암연합회의 결속력이 지역불자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거기에 지역 사찰과 단체에서 일하는 재가자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의 실무진이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낀다고 한다.

광주지역 불자들이 얼마나 화합과 지혜로 무장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어느 지역이든 스님들이 결속하고 재가자가 화합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른바 불교세가 강한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포교를 격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속하지 못하는 사암연합회도 많고 단합하지 못하는 재가단체도 많다. 그래서 스스로 '각각등보채'라고 말하며 자조하기도 한다. 그런 지역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광주를 배우라. 물론 광주도 빛고을아카데미 하나를 성공시키기엔 5년이란 세월동안 속 아픈 사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함께 손잡고 의논하며 극복해 오느니 빛고을 아카데미를 배웠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포교사단의 도약을 바라며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이 새로 선출됐다. 포교사단의 살림꾼으로 이름을 높여 온 임희웅 포교사가 제6대 단장이 된 것. 서울경기지역 단장을 겸하게 된 그는 단장에 선출된 후 포교사단의 100년 대계를 역설했다. 내부의 갈등을 일소하고 각종 정관을 개정 보완하여 포교사단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결속이다. 그리고 조직을 움직이는 법령(정관)이 깔끔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이 분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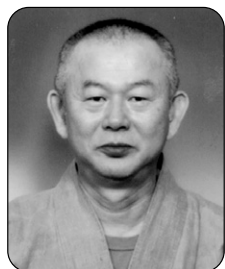
임희웅 포교사가 10년 역사를 정리하고 조직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포교사단의 환골탈태를 선언한 것이다. 내년부터 입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는 누구보다 포교사단의 안과 밖을 잘 알기에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믿는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종단으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대접'은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다. 출가와 재가의 사이에 놓인 장벽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포교 원력을 잃지 않고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들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원력보살들'이다.

그 원력의 빛이 바래지 않고 더욱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제6대 회장 임희웅 포교사를 중심으로 도약하는 포교사단이 될 것을 믿는다. 포교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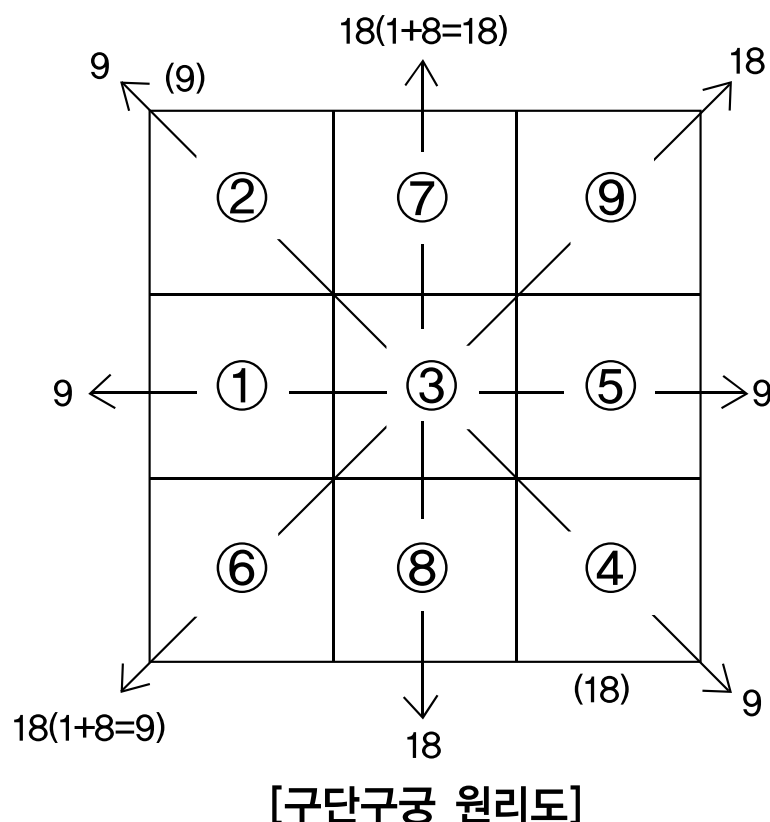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책임 10일 완성
저자 :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 안에 길흉, 일의 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신통법, 조상천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초보자 환영 10일이면 최강자가 될수있음
- 사찰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개강 : 화·수요일반 ...오후 2시~5시
 목·금요일반 ...오후 2시~5시
 토·일요일반 ...오후 1시~5시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